[해외논단] 케리의 외줄타기 외교정책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존 케리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으나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거의 무승부에 가깝다. 지난 4월 이라크 저항세력과의 치열한 전투가 일단락된 후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포인트 뒤처져 있던 데 비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든 셈이다.

전당대회의 목적은 '케리 띄우기' 였지만 흥미로운 점은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극히 적다는 점이다. 유권자층이 철저히 양극화돼 있고, 사람들은 일찌감치 태도를 결정했다. 양당의 치열한 유세전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끌어내면서 몇 개 안 되는 주에서 7%를 겨냥한 다툼인 것이다.

이는 케리 후보에게 부시 대통령에게는 없는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케리 후보가 이라크 전쟁뿐만 아니라 알 카에다와의 전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케리 후보는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국이 동맹의 틀 안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표명하긴 했지만 프랑스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동맹을 중시하는 원칙에 대해 모성애에 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케리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가 민주당 기반을 강화하자면 반전(反戰) 분위기를 풍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보듯, 부시의 대통령직 수행에 회의적인 접전지역의 유권자들조차 이라크 침공은 실수였으며 알 카에다와의 전쟁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하기를 주저한다. 케리 후보 역시 알 카에다와의 전쟁 중단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부시 대통령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면, 케리 후보는 상충하는 요구사항들로 발목 잡혀 있다. 그가 이라크 전쟁은 실수였지만 자신이 부시보다 전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도파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류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소외시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만약 선거 당일 이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케리 후보는 패배할 것이다. 반면 케리 후보가 반전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자신의 기반을 지킨다면 당락을 판가름하는 3~4%의 유권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케리 후보는 어쩔 수 없이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부시 대통령이 파고들 여지가 생긴다.

케리 후보에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존 F 케네디 이후 비남부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다. 남부의 아성을 무너뜨려야 승리할 수 있지만 매사추세츠 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큰 난제다. 노골적인 반전 노선의 역풍이 가장 심한 곳도 바로 남부 지역이다.

케리 후보의 입장은 이렇다. 그는 대략 부시 대통령에 필적하는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만 박빙이어서 승리할 정도로 충분치는 않다.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케리 후보는 전쟁관을 분명히 밝

히지 않았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오하이오 주 같은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것이고, 너무 부드러우면 남부의 부동층을 잃게 된다.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부시 대통령의 이점이라면 이점이다. 케리 후보의 약점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의 견해로는 케리 후보는 부시의 전쟁수행을 맹비난하면서 그라면 달리 선택했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동시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철군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 대신 반(反)부시 정서에 기대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자신의 베트남전 경력을 부각시켜 전쟁에 찬성하는 중도파를 끌어안으려 할 것이다. 이런 전략이 먹혀들 수는 있지만 위태로운 곡예를 벌여야 한다. / 조지 프리드먼 (美 스트래티직포캐스팅 회장)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2004. 8. 11>